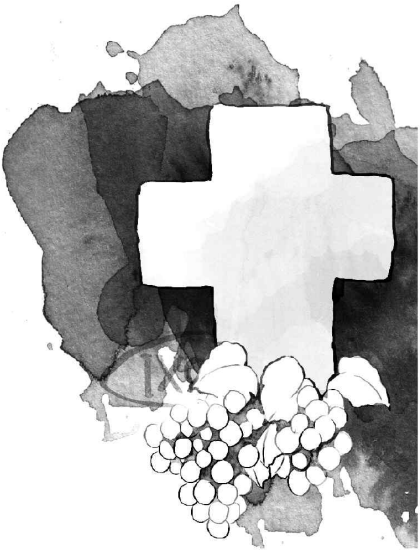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5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뿌연 하늘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깊은 절망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은 세월호참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아픔들을 통해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 튼튼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태5:10 …… 인도자

▲ 교 독 문 …… 128. 사순절(5)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다 함께

▲ 성경봉독 …… 호 10:9-15 …… I. 인도자
II. 송형운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고난찬송 메들리 …… 찬양대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싸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이 없는 주의 사랑 한 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말 씀 …… **정의의 비를 기다리며**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새 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위에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 함 께: 아멘. 나의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세상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탐욕과 거짓, 절망을 버리고 사랑과 진실,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십자가의 초대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과 배신의 드라마가 펼쳐지려합니다. 당신은 이 드라마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은 경험, 배신하고 배신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모든 환희와 비통함을 가지고 이 드라마로 나아갈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야 매년 하는 일이니 적당한 선에서 옷을 찢고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로 만족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연민과 두려움을 '정화'하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요청, 내 전부를 걸어야만 한다는 요구와 함께 온 초대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

어떤 이는 우리가 이런 초대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고통, 슬픔,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말과 그분이 정의로우시다는 말은 모순으로 들릴 뿐, 이제 더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

어떤 이들은 십자가 사건이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이미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폭력과 죽음을 접하고 있으며, 저녁 식사 중에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접하더라도 TV를 끄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의미 체계는 그 힘과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고 권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내년에 가지요.” “그러기에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서 말이죠.” …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부하는 강력한 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금까지 삶을 설명하던 이야기가 부서졌고 기존의 이야기가 자신의 모든 삶을 설명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고개를 돌립니다. …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수난이라는 드라마로 초대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며 모든 드라마에 종지부를 찍는, 모든 드라마를 종결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를 전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난은 너무나 섬세하고 변혁적인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아는 모든 정의를 넘어서고 전복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가 풀어야 할 신학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위험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걸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지나야 하며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에 저항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깊이 애통할 때, 마주하기 싫은 것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할 때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새라 코클리, 「십자가-사랑과 배신이 빚어낸 드라마」(비아) 중에서

초록가게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초록가게 기증방법>

1. 기증할 물건 상태 점검하기 (이런 거 안돼요!~~)

3년 이상 된 중고전기제품

고장 난 물건

스크래치 많고 금이 간 물건

얼룩 보풀 구멍 색 바랜 옷

10년 이상 유행 지난 옷

속옷, 식품, 의약품

신발은 새 신발 외에 안 됨

2. 기증할 물건은

'라면상자/종이상자'에 담아 보내주세요~

좋은 물건, 안 쓰는 새 물건들 환영

3. 초록가게에 있는 <기증카드> 필히 작성하신 후 기증합니다

물건에 대부분 사용설명서가 없어서 기증자에게 문의 필수

버려질 물건들을 몰래 버리듯 놓고 가는 일 예방

교회에서 처리하기 힘든 물건은 다시 가져가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초록가게 이용법>

1. 물건 구경하시고
2. 물건 값은 문 옆에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기성 이은정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승현
김수진 김애경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정민 이혜령 김종성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정영우 김진우 임미진 김태은 김태현 김해선 김현동 오유경 김형근
김혜라 노성희 김만균 문홍일 박기원 이미영 박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신연화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이순 서효진 성지현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슬기
왕수명 유중희 윤성종 김윤정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랑 이성범
권현숙 이수자 이용일 최연실 이유선 이은주 이재삼 전정현 이진영 한양미
임광호 임 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장병준 박소현 장혜정 전은택 전현선
정완수 김재광 정현선 정현숙 조병주 최 숙 최옥분 최은미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최형민 추헌영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성건 정지혜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기석 김남종 오복순 김영호 김향자 박기준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방경선 서원금 신진식 변혜정 안성호 김희숙 양경해 유중희 이상도
이시경 임설희 임형욱 정영례 정학선 김현숙 추은총 하현일 김광우 무명21

생일감사헌금

박준민 이혜경 최윤희

녹색꿈헌금

박영림 윤미경 윤수진 무명7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동호회** : 오늘 오후 1:30부터 동호회 모임이 열립니다. 각 동호회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2. **떼제 찬양과 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열립니다. (찬양과 악기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3. **북토크** : 김기석 목사의「끙끙 앓는 하나님」북토크가 4일(화)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4. **입교교육** : 8일(토)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입교교육이 있습니다.
5. **오뚝이 저금통** : 이주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희망의 오뚝이 저금통'을 부활절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6. **판매** : 여선교회에서 들기름(7,000원), 참기름(8,000원)을 판매합니다.
7. **예배 생활 안내** : 휴대폰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모드로 바꾸어 주세요. 음료는 예배실 밖에서만 드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실천사항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4월 10일(월) - 14일(금) 저녁 7:30 교육관

다음 주 설교 본문	롬 5:12-15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이형숙	신영신

4월	**1부 영접위원**	이진영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혜령 최은미 김민화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성실		

오늘 식당 봉사	곽권희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김명희 박명제 김재환		
다음주식당봉사	김윤정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이현숙 백미혜 오형일 안정준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46-50)	**다음주설거지봉사**	6여선교회(41-45)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최철수